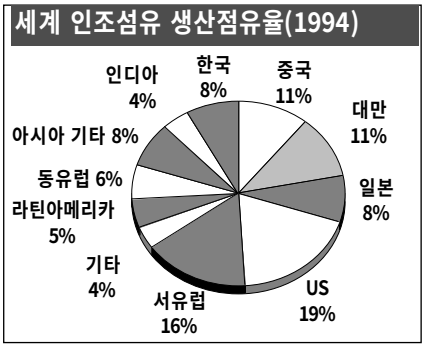
유럽 인조섬유 생산 6% 증가

94년 2220만톤으로 53%차지 … 폴리에스터 7% 늘어

세계 인조섬유시장이 천연섬유의 생산량감소로 시장을 확대, 94년 생산량이 2220만톤에 달해 전체 생산량 4300만톤의 53%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

지역별 생산량추이를 보면, 동유럽을 제외한 전체지역에서 생산량 증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서유럽은 360만톤으로 전년대비 6%의 생산증가율을 나타냈다.

품목별 성장률을 보면, 폴리에스터가 7%로 가장 높은 생산증가율을 보였으며, 아클릴섬유가 6%로 그뒤를 이었다.

유럽은 인조섬유 수요증가로 수입량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유럽 인조섬유시장은 수출은 소량증가에 그쳤으나 수입은 전년대비 8%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.

미국은 94년 7%의 인조섬유 생산증가율을 나타냈다. 현재 미국의 인조섬유생산량은 400만톤 규모로 단일국가로는 최대 생산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.

분야별로는 함성섬유 8%, 폴리아마이드 3%, 아크릴섬유 2%의 생산증가율을 각각 기록했다.

일본은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93년대비 1%의 미미한 증가에 그쳤다.

<화학저널 1995/6/26>